

일상 속 도시



해가 낫고 낫고 질 무렵, 광주영상복합문화관 옥상에 오르면 밤 아래로 그림같은 풍경이 펼쳐진다. 유럽의 어느 공원을 연상시키는 '하늘공원'의 녹색 잔디밭에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고개를 돌리면 푸른 나무로 둘러싸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한다.

이런 풍경 감상이 가능한 건 '광주 뷰폴리' 덕분이다. (재)광주비엔날레가 운영하는 '광주 폴리 정책'에 나서보는 건 어떨까. 올 광주폴리 투어와 틈새호텔 운영이 본격화되면서 광주폴리를 즐기고 체험하기 위한 관람객이 늘고 있다.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폴리는 '전망 좋은 곳'으로 입소문이 난 광주폴리Ⅲ '뷰폴리+설치작품 자율건축'이다. 독일 미디어아트그룹인 리얼리티즈 유나 이티드의 팀 에틀러&안 에틀러와 한국 건축가 문훈이 참여한 '뷰폴리'는 강렬한 마젠타와 옐로우의 스트라이프로 뒤덮인 계단과 기둥이 화려하고 색이 변하는 33개 트리비전으로 구성됐다.

'뷰 폴리'의 뒷쪽으로는 무등산을 조망할 수 있다. 곳곳에 마련된 의자에서 도심 곳곳의 다채로운 풍광을 내려다볼 수 있으며 나무 바닥에 편하게 앉아 망중한을 즐겨도 좋다. 무엇보다 해가 질 즈음에 폴리에 올라 전망의 야경까지 보고 내려오면 금상첨화다. 영상관 건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까지 올라간 후 뷰폴리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작품이 설치된 옥상에 오를 수 있다. 관람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다.

뷰폴리는 광주폴리 투어의 마지막 코스로 활용, 관람객들에게 광주의 전경을 선사하고 있으며 중국, 홍콩 등 외국인 관람객을 비롯해 사진 및 영상



'뷰폴리' (왼쪽)와 뷰폴리에서 바라본 아시아문화전당 전경.

도시가 주는 멋

비엔날레재단 '광주 폴리' 체험
무등산 전망·도심 조망 '뷰폴리'
서도호 작품 '틈새호텔' 운영도
1인 1박 원칙 선착순 마감



동호회의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폴리 II '틈새호텔'은 이번 달부터 신청을 받아 숙박을 진행하고 있다. 2012광주비엔날레 때 첫 선을 보인 '틈새호텔'은 도심 속에서 하룻밤 묵을 수 있는 체험형 폴리로 뉴욕·런던·서울을 오가며 '유목'을 주제로 독창적인 예술관을 구축한 2001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참여 작가 서도호의 작품이다.

작은 트럭을 개조해 만든 틈새호텔은 아주 작은 규모지만 실제 침대와 화장실, 에어컨, 온수·냉수, 조명등, 냉장고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침구는 라마다호텔에서 세팅했다.

"다음날 출근만 아니었다면 오래 머물며 분위기를 더 오래 만끽하고 싶은 멋진 순간이었다. 창틀으로 보이는 풍경이 참 좋았다.", "디자인부터 디테일한 부분까지 모두가 섬세했다.",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줄 수 있어 좋았다. 아기가기하면서 시설이 알차게 들어 있어 인상적이었다.", "혼자 이런 저런 생각도 하고 영화도 볼 수 있어 행복했다" 등 이용객들의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폴리 홈페이지 내 틈새호텔 '예약' 게시판에서 예약을 받고 있으며 용봉동에서 정박해 묵을 수 있다. 만 20세 이상 성인에 한해 1인 1박 원칙이며 선착순 마감이다.

뷰폴리 인근 서석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광주폴리Ⅲ 위니마스의 '아이 러브 스트리트'는 문화쉼터로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음악분수를 운영한다.

한편 재단은 광주폴리 인포센터 운영을 통해 관람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영상복합문화관 6층 인포센터에서는 광주폴리 I·II·III 총 30개 작품이 담긴 홍보영상을 볼 수 있으며 지난 4월 선발전 8명의 광



서도호 작품 '틈새호텔' 내부 모습. <광주비엔날레 제공>

주폴리도슨트들은 매 투어 때마다 광주 도심 곳곳에 자리 잡은 30여 개 폴리를 관람객 맞춤형으로 설명, 이해를 돕고 있다.

최근에는 송원초·송의과학기술교·전남대 건축학부 동아리 등 단체관람이 펼쳐졌으며 30일에는 인천도시공사 직원들의 방문이 예정돼 있는 등 외국인들의 탐방도 이어지고 있다. 문의 062-608-4226.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그림 읽어주는 남자의 미술기행

광주시립미술관, 이창용 대표 강의
25일부터 마지막 주 토요일 무료수강
디자이너 샤넬부터 샤갈·로댕·이중섭까지



지난해 첫 개설돼 인기를 모았던 '그림 읽어주는 남자' 이창용(아트 스토리 105 대표)의 강의를 올해도 계속된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전승보)은 토요일 문화 이벤트 '그림 읽어주는 남자의 미술기행'을 5월부터 모두 4차례 걸쳐 마지막 주 토요일(오후 3시-5시) 미술관 대강당에서 진행한다.

지난해 고흐, 모네, 벨라스케스 강의를 진행했던 이 대표는 올해는 유명한 프랑스 디자이너 샤넬과 한국 작가 이중섭까지 다양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라 마틱하게 들려준다.

25일 열리는 첫 강의 주제는 '여성에게 자유를 허락하라, 가브리엘 샤넬'로 여성 패션의 혁신을 선도한 프랑스 패션 디자이너 샤넬의 인생과 예술세계를 소개한다. "내가 곧 스타일이다"고 말했던 샤넬은 답답한 코르셋이나 장식성 많은 옷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킨 인물이다. 특히 입기 편하고 활동적이면서 맵시 있는 샤넬 스타일은 오늘날까지 여성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패션 아이템이자 패션의 대명사가 됐다. 샤넬은 파리에 거주했던 이 대표가 애정을 가졌던 인물로 미술가는 아니지만 그녀의 다채로운 삶을 통해 또 다른 예술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두번의 강의는 '사랑'을 테마로 펼쳐진다. 예술가들에게 사랑하는 연인은 영감을 주는 '뮤즈'가 된다. 연인과 만남을 통해 빼어난 작품을 제작하기도 하지만 때론 연인을 배신하기도 한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1부'(7월27일)는 라파엘로 산치오와 마르코 사갈의 이야기로 연인과 아름다운 사랑을 이어가며 작품을 제작한 두 남자의 이야기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2부'(9월28일)의 주제 '오귀스트 로댕과 프란시스코 고야는 연인을 버렸던 '나쁜 남자'의 대표주자로 소개된다.

마지막 강의는 '울부짖는 황소 화가 이중섭'(11월30일)이다.

대학에서 로마와 파리 등 주요 미술관 현지 가이드를 거쳐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바티칸 박물관 큐레이터로 활동했으며 현재 미술사전문 강사로 활약 중이다. 200명 선착순 무료. 문의 062-613-7132. /김미은 기자 mekim@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 냉난방비 절감 효과!

지붕공사

슬라브 옥상, 주택, 상가
원룸, 데스리, 한옥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흰이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 660㎡, 건평 : 83㎡, 매매가 :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